

시론



송재원 목사
사람의통신교회 협동목사

시원함과 멋진 피서를 꿈꾸던 2026년 여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난히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찍 찾아온 영상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지는 폭우까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연일 폭염특보와 재난특보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남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 전국의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것 같아 반갑기만 했던 비가 어느 순간 폭우가 되어 홍수를 몰고 왔습니다. 타들어가던 땅에는 단비였지만, 너무 많이 내린 비는 또 다른 재난이 되었습니다. 폭염과 가뭄과 폭우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목회 현장에서 드러지는 기도제목도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더위를 식혀 주소서.” “가뭄이 물러가게 하소서.” “폭우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칼럼



윤형석 목사
구로중앙교회

교회의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숫자와 기록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배 출석, 등록 교인, 재정, 교육과 선교, 크고 작은 행사들이 한 해의 사역을 보여 줍니다. 모두 필요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 담기지 않는 열매도 있습니다. 마음을 품었던 성도가 용서를 선택하고, 낙심했던 청년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어쩌면 목회의 가장 귀한 열매는 숫자와 표의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세웁니다. 예배와 설교를 준비하고, 조직과 프로그램을 만들며,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분주한 목

폭염과 폭우 속 마지막 피서

돌이켜보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로 대비하고 노력한다지만,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과 쏟아지는 비, 몰아치는 바람까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재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목회현장에도, 기록을 구하는 성도의 삶에도 폭염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급한 대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메마르고 몸과 영혼은 지쳐갑니다. 폭우처럼 문제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닥쳐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홍수에 휩쓸려 무너지듯 그동안 버텨오던 삶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방수벽을 세워도 스며드는 물을 모두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신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며 영혼까지 메말라가는 것을 실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물을 뱉으신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짙어지지 않게 하시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영남지역에서 드러졌다는 기우제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비를 향해 비는 것이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쫓는 것입니다.

폭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폭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혼란 역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타들어가던 대지가 한 번의 비로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폭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늘을 한번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폭우처럼 문제가 쏟아지고 있다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폭염도, 폭우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목회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한 번쯤은 모든 역할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목회자라는 이름도, 성도라는 이름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성경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말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폭염을 피해 그늘을 찾듯, 폭우를 피해 안전한 곳을 찾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산성에서 쉼 곳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서 기도와 말씀이 폭염과 폭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피서이며 참된 평안이 있는 쉼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회의 한복판에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 끝에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남겨야 할 가장 소중한 열매는 결국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목회는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고백해 온 사중복음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입니다. 중생으로 새 생명을 얻고, 성결의 은혜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며, 신유를 통해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재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유산은 교회의 분장에만 머물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다음세대는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으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신앙은 설명으로만 전수되지 않습니다.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은 잘 만든 프로그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것은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남고,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연젠가 우리가 만든 제도는 바뀌고 행사는 잊힐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받은 믿음을 다음세대에 전한다면 그 목회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떠난 뒤에라도 그들이 예배를 이어 가고 사랑을 실천하며 또 다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우리의 목회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의 열매이며, 성결교회가 다음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社說

부흥의 골든타임(Golden time)

여름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교회와 교단은 여러 각 기관과 함께 신앙의 유익을 위한 여름 행사들을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다. 특별히 목회자 수련회의 주제 “예수 안에 쉼, 성령으로 충만”처럼 다시 영적으로 부흥의 비전을 갖게 되었다. 법사에 때가 있듯이, 신앙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시간과 때는 인간사(人間事)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농부도 씨앗을 뿌릴 때 뿌려야 거둘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며, 인생 농사나 자식 농사나, 교회 부흥과 성장도, 나라의 흥왕함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이다. 금번 여름의 수련회의 때를 일시적 행사보다도 이를 잘 활용하면, 가을엔 부흥과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요즘 방송에서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용어는 의학과 방송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이는 여러 의미가 있는 용어들이 결합 및 변형되어 현재에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는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생존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절대적인 제한된 시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 미국의 군의관이었던 R. 아담 카울리(R. Adam Cowley) 박사가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사고 발생 후 첫 1시간 이내의 처치가 생사를 가른다.”고 주장한 것이 시초이다. 이 용어가 한국에서는 “골든아워(Golden Hour)”의 의학적, 사회적 중요성이라는 의미와 일본식 표현인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특히 의학에서는 심정지 발생 후 뇌 손상을 막는 데는 4분, 뇌졸중 발병 후에는 3시간 등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기를 뜻하고, 사회 경제에서는 위기에 처한 정책이나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의 ‘마지막 기회(Last Chance)’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우리의 삶과 성장에서도 이런 ‘골든타임(Golden time)’의 개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먼저, 인생의 삶에서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이라는 망설임으로 때를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대인관계의 갈등, 건강의 이상 증세, 경제의 위기 등 나중으로 미루면 ‘골든타임(Golden time)’을 잃게 된다. 또한 모든 시간의 가치는 똑같지 않다. 자신의 인생에서 부언가 배우고도 전하는 가장 좋은 황금기(黃金期)가 있다. 이 기회를 집중하여야 자신의 인생을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얽매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아니 된다. 앞으로 찾아올 새로운 ‘골든타임’을 준비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영적 생활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 결정적인 기회의 때가 있음을 증거 한다. 첫째, 회개와 구원의 골든타임이다. 이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의미한다(마 4:17). 그리고 은혜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다(고후 6:2). 둘째, 신앙적 회복의 골든타임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 시험으로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기도가 막히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첫사랑이 식어 영적 인공호흡의 때가 있다가 2:5. 셋째, 순종과 사명 수행의 골든타임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이나 선한 일에 대한 여건을 열어주신 기회에는 즉각적인 순종의 시간이다(갈 6:9-10. 건강, 재물, 열정, 젊음 등이 있을 때가 현신의 때이다. 넷째, 신앙 계승의 골든타임이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승의 황금기에 올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계승하는 신앙 유산의 시기를 잡는 것은 중요하다(잠 22:6. 세상의 가치관보다 신앙적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면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결신문사

등록번호 서울 다 50663(2003년 9월 17일 창간 / 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이충만 사장 김충현 편집인 권순달 후원회장 박근주 인쇄인 배성환
(주)성결신문사 030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행촌동 1-29 총회회관)
대표전화 070-7132-0091~5 홈페이지 www.sknews.org
광고신청안내 070-7132-0091 독자기고·제보 sknews12@daum.net
●구독료 : 1개월 4,400원 / 1년 44,000원(VAT 포함)
●후원·입금계좌 : 국민은행 533301-01-16871 4(주식회사 성결신문사)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 공청회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담임목사가 총회 대의원으로 참여하는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교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회 대의원 전원 파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교단 내 민주성과 대표성 강화 방안 ▲지방회 대의원 선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방안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합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가 교단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교단의 건강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공청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이나 SNS, 문자로도 많은 의견바랍니다.

- 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총회본부 대강당
- 대상 : 전국교회 교직자

■문의 : 전영호 목사 010-4748-2920
참여하실 분은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